

태풍 경주

발행일 2023-08-10 17:39:45

한국농어촌공사경주지사는 왕신저수지 범람 우려에 따라 지난해 힌남로로 3m 낮아진 여수로를 통해 배수하는 한편 양수펌프를 가동해 배수작업을 전개했다.

형산강의 범람으로 역류하는 물로 침수되는 성건동 주택단지 일대에 양수기 4대와 준설차를 동원해 배수작업을 전개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왼쪽)과 주낙영 경주시장(가운데)이 암곡 하천범람 우려 지역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경주 왕신저수지가 만수위에 임박하자 물을 여수로를 통해 빼내고 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Copyright © 2018 www.idaegu.com All rights reserved.